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앞장'

## 도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14개 핵심과제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방향으로 14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있어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주요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지속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매월 도교육청 각 부서별 적극행정 주요 성과 제출 후 적극행정 총괄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도 선정·운영한다. ▲정책공보관 학교 업무 최적화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환경 교육 ▲미래인재과 미래형 학교환경을 위한 학교 정보업무 개선 ▲행정과 먼저 찾아가는 적극 교육 행정 컨설팅 등 4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하반기 1회씩 총 12명 내외로 선정해 교육감 표창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장 우선 선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도 확대한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 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여기서 제시

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요구 면책, 징계의결 면제·간경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배상책임보험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화·세분화 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천호성 후보는 난독증인가"

## 서거석 예비후보, "정시확대 공약 의도적 왜곡" 비판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냈다. 서 후보는 정시 확대에 반대하면서 수능 위주 선발은 공정한데 없고, 우리 전북 학생에게 불리하다, 특히 정시는 한 줄 세우기 대학 서열화를 강화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천 후보는 서거석 후보의 주장을 정반대로 둔갑시켜 '윤 당선인의 정시 확대 공약을 그대로 받았고 왜곡 거짓 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서 후보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지만 '수능 교육'은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전북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영여, 수학에서 매우 저조하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 후보의 수능 정시 교육 강화 입장에 굳이 '서 후보가 윤 당선인의 정시 확대를 그대로 받아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독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에 씌우려는 악의적인 왜곡이자 반교육적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혁신학교 85개교 대상 방문 컨설팅 진행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상반기 혁신학교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년차 혁신(혁신+학교) 25개교, 3년차 혁신(혁신+학교) 18개교, 2·4·5년차 혁신학교 31개교, 3~6년차 43개교 등 총 85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상반기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중 2022년 신규 지정된 혁신학교(원) 및 혁신+학교는 온샘유치원 등

유치원 3개원, 구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1개교, 순창중학교 등 중학교 6개교, 양현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개교 등이다.

이번 혁신학교 컨설팅은 1년차 혁신학교는 주로 운영에 대한 공감, 경청을 통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3년차 혁신학교에서는 3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찰과 함께 종합평가 준비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2·4·5년차 혁신학교는 학교간 교류 컨설팅이 주를 이루

고, 3~6년차 학교는 외부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구성원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단순화, 학교 및 교육지원청 자율 계획에 의한 컨설팅 운영,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찰과 피드백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는 서로 공감하고 참회력을 신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혁신교육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모두 85개교(유치원 포함)로, 1년차와 3년차 혁신학교는 도교육청, 2·4·5년차 혁신학교는 교육지원청 주관 컨설팅, 3~6년차 혁신학교는 학교 희망에 따라 요청 컨설팅이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 "모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는 허위사실"

## 김윤태 교육감 예비후보, 입장 발표

김윤태 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선거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의 현안으로 떠오른 모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사용과 관련해 "모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도민들이 '모든' 민주진보후보로부터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는 '208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 일부 단일화 한 후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는데, 이를 마치 민주진보 성향의 유일한 단일후보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모 후보 측이 현수막과



홍보물, 방송토론 등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를 계속 사용해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단일후보'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은 "(전) 경기도교육감 민주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이라고 후보 측에게 통지했다. 이미,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임의적으로 '단일후보'라고 쓴 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전북도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 학교 밖청소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제공 확대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3일 스타센터에서 전라북도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전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라북도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이상엽 센터장과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소하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등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

소년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취업, 생활, 심리, 적응, 경제, 학업 등의 통합상담, 경력설계, 전문가 심층 연계 상담,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참여 연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청년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행 센터장은 "향후 취업의 의사가 있지만 학업 중단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의 사회진입 촉진을 위해 전주대가 선도적으로 청년고용 서비스 통합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광재식 작가 초청 온라인 특강

우석대학교 도서관은 오는 11일 광재식 작가 초청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석독서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대학 구성원의 과학적 지식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재식 작가는 이날 'AI에 대해 덜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라는 주제로 AI의 영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과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묶어서 강연할 예정이다.

SF소설 작가가 공학박사인 광재식 작가는 MBC '심야괴담회'와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에 출연하고 있다. 온라인 특강은 오후 1시 20분부터 3시까지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woosik.ac.kr/bbs/content/2\\_26697](https://library.woosik.ac.kr/bbs/content/2_26697))를 참고하거나 도서관(063-290-1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정창규 교수 '압전 나노섬유 성능향상 원리 규명'

## 저명 국제저널 Small 논문 게재·표지 논문 선정... 성과 통해 세계 최고 권위 학회 연사 초청 강연 진행 예정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가 누르면 전기가 생산되는 압전(壓電)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나노섬유 조성에 따른 성능 향상 원리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분야의 세계적인 저명 국제학술지인 Small 4월호에 게재,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외부에서 기계적 힘을 주면 전압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전압을 가해주면 변형이 생기는 특성을 '압전(壓電)'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압전 소재는 딱딱한 세라믹 소재다. 그러나 '폴루오르화 폴리비닐리덴(PVDF)' 계열의 서로 다른 고분자가 결합해 조성된 소재는 기계적 유연성과 높은 절연성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세라믹 소재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 고분자 결합 소재는 그 원리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PVDF 계열의 공중합체 소재 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단량체(monomer)의 조성에 따라 압전 특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고분자 섬유 소재 개발이 쉬운 공정에서도 이것이 확인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를 밝히기 위해 PVDF 계열의 고분자 결합소재를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넓은 면적의 섬유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해 얇은 나노섬유 구조로 만들었다. 이 전기방사 방법은 최근 마스크 필터 제작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전기방사 샘플 제작 및 측정조건을 확립해 다양한 조성의 PVDF 나노섬유를 제작했다. 압전 세라믹의 경우에는 조성에 따라 압전 특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고분자 섬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압전 센서 및 에너지 소자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같은 연구 성과를 통해 정 교수는 소재 분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재료학회(MRS)에 초청강연자로도 선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MRS 학술대회에서 초청 강연은 물론, 심포지움 내에서 수차례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창규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압전 고분자에 대한 원리 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북돋을 수 있고 나아가 웨어러블 소자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며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MRS 초청강연자로 선정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퇴직교육자 394명, 천호성 후보 지지 선언

천호성 후보 지지 퇴직교육자 394명 일동은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호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뒤돌아보면 최소한 부패비리는 전북에서 잊혀진 단어가 됐다며, 혁신학교 정책, 인권보호 정책,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경쟁교육 강화 프레임에 맞서 공교육을 지켜내고자 했던 소신 있는 정책은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북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초중등교육현장을 전혀 모르는 초보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할 지도, 그동안 근절됐던 부패와 비리가 다시 관을 칠지, 또 우

리 아이들은 무관경쟁교육으로 내몰릴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전북교육의 앞날을 위해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 후보는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하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 상담 생활지도 등을 해왔던 15년의 교사 경험,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에서 15년의 수업연구 교수로 활동했던 경험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한 50대로,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